원자력안전위원회 | 보도자료 |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9.(화) 10:30 (2025. 9. 9.(화) 석간) 배포 2025. 9. 8.(월) 15:00

해외직구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, 원천 차단한다

- 최원호 원안위원장, 인천공항 특송화물 방사선 감시 현장 점검

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최원호, 이하 '원안위')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**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**한다. **최원호 위원장**은 **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**를 찾아 **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**하였다.

원안위는 현재 **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**하여 **운영**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**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**하고 있다.

최근 **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**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. 이에 원안위는 **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**하고, **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%에서 85% 이상으로 높일 계획**이다.

원안위는 **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·운영에 34억 4,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**하였으며,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**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**해 나갈 예정이다.

현장을 찾은 **최원호 위원장**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“항만 화물과 달리, **공항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**되는 만큼 앞으로도 **빈틈없는 방사선 감시로 국민 안전을 지켜달라**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윤 (02-397-7312)
		담당자	사무관	이대현 (02-397-73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